

## 신속 정확한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

### 소방파출소와 소화전 확충 절실 ... 화재 초기진압 필수

이보형(52세 사진) 포천소방서장은 포천출신으로 포천중학교를 졸업했으며 1979년 1월 5일 첫 발령을 받은 후 행정자치부 소방국 생활실 근무, 포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및 방호예방과장을 거쳐 제2소방재난본부 설치준비 기획단장,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제6대 포천소방서장으로 취임한 이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화재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사장은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부인과 1남1녀를 두고 있다. 다음은 이보형 서장과의 일문일담이다. (편집자주)

●취임소감은?  
지난해 11월 17일 포천소방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회복지시설과 각 소방파출소 등을 방문하고 현지 사정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기관장으로 발령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담이 있다. 기관장으로서의 노하우나 경력,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의정부가 집인데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4개월여를 보냈다.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화재나 다른 사고가 있는 현장에는 어디든지 가기 때문이다. 포천소방서장으로 부임한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역사회에서 소방서의 역할은?  
소방서가 하는 일은 화재진압이 전부는 아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직접 방문한다. 청소 업무와 같은 공공분야 업무가 민간위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급업무도 언젠가는 위탁될 수 있다.

소방업무는 119구급 활동과 교통사고 처리 등 수없이 많다. 또한 국민들이 항상 지켜보는 소방공무원의 연예인과 같다고 생각한다. 소방공무원의 머리로 보는 소방기본 법령을 알아야 하고 각종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키아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몸과 머리로 화재진압과 구급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한다.

●2006년도 포천소방서 활동사항은?  
포천지역은 826.41km<sup>2</sup> 인구 15만 8천여명, 6만 1천 555세대로 서울시 면적보다 1.4배로 도시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주택과 영세공장들이 혼재되어 있어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비해 소방인력은 3과 10팀 1구조대, 62안센터, 7지역대 등 소방서 직원 166명이다. 또 의무소방 8명, 의용소방대원 57명, 기능직 1명이다.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구급차와 펌프 및 기타 차량을 합해 44대 소화전 210개소(지상식 184개, 지하식 26개),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보형 서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제6대 포천소방서장으로 취임한 이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화재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방검사 대상은 공장 3천여개소와 복합 건물, 숙박시설 등 5천 599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 17개소, 다중이용시설 613개소, 고층 건물 86개동, 위험물제조소 1천여개소 등의 소방대상물이 있다.

지난해 포천지역 화재는 총 316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다. 또 화재에 따른 피해액은 39억 2천 232만원으로 전년도 6억 9천 705만원보다 22%가 증가한 수치다.

화재발생 장소는 공장 작업장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과 아파트가 67건, 자동차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원인은 전기 107건을 비롯해 불티 20건, 담배 10건, 방화 및 난로 각 6건 등이다.

또 구급 긴급활동 상황은 출동 총 8천 480건으로 전년대비 665건 8.51%가 증가했고 구조된 인원 333명, 구급환자 이송 5천 224명이다. 이같은 수치는 일일평균 23.2건 출동에 15.2명을 구조 및 응급환자를 이송함으로써 시민 28명중 1명이 119구조대와 구급대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조활동을 사고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150명, 산악사고 71명, 실내간접 사고 14명, 승강기사고 8명, 수난사고 7명, 화재사고 6명, 기타 77명이다.

전체 구조인원 40%가 8월과 9월에 집중되고 있어 주5일 근무제 확산과 레저활동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 및 산악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 전체 사고의 43.6%가 발생하고 있다.

구조인원된 333명중 69%에 해당하는 230명이 남성으로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이 각종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41-50세가 전체 구조인원중 가장 많은 112명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 포천소방서 주요계획은?  
2007년은 '시민은 편안하고 관광객은 안전하게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확립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대형화재 발생우려가 있는 17개소를 대상으로 진압대책을 수립했다. 불철과 월동기, 연휴 등 취약시기별로 소방안전대책 강화와 시설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대책을 확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 통제단 구성과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지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원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절차 숙달을 통한 위기관리능력 제고 ▶의용소방대 조직 정예화 추진 ▶의용소방대원 1인 근무 지역대 배치를 통한 소방력을 보강했다. 유층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변경, 비상구 폐쇄 등을 지도단속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간담회를 통한 자율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또 소방검사와 병행해 시설별 취약요인 안전관리요령을 지도하고 공장단지 및 다중업소 밀집지역 소방용수시설 우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레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인명구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악사고 안내표지판 19개소 246개소 설치와 저수지 등 52개소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 재난통신 지원단 등 16개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주요 등산로에 간이 구조 및 구급함을 신설해 운영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통한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내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맑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월1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연중 Clean 신고센터운영 ▶소방서비스 만족도 평가 및 미흡사항 개선 ▶Clean-소방 실현을 위한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 등과 의무소방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포천소방서 애로사항은?  
지난해 각종 화재로 인한 포천소방서에서 출동한 건수는 759건으로 경기도내 30개 소방서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화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포천소방서 관할 소방파출소는 6개로 포천시 면적의 1/2에 불과한 구리시에 소방파출소가 3개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포천에 공장 3천개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방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 포천소방서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그저 직원들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소방서 건물은 직원이 80여명이던 시기에 신축한 건물로 현재 직원은 166명이다. 부족한 공간바탕을 위해 증축이 필요하지만 건축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에 묶여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상수도 시설이 완비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화재초기 진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화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소화전 설치를 위해 포천시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소방서 자체적으로 5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소규모 공장이나 다중이용업소를 지도단속할 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평생 한번도 화재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화재에 소홀하기 쉽고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다. 소방서 직원들이 방문에 지도단속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마을회관에 화재발생 사진을 게시해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생각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㉓  
포천신도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내년 5월 예정지구 지정될 듯 지구지정 후 개발행위제한 해제

포천신도시 예정지구인 군내면(경작지) 일원 738만평(24.4km<sup>2</sup>)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와 관련해 지난 7일 여성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1월 2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신도시 추진일정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해제시기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신도시는 지난해 12월 4일 신도시 시화화 예정용지 150만평이 포함된 2020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 승인받은 후 ▶2007년 2월 13일 명품복합 신도시(500-1,000만평)를 경기도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 했고 경기도에서는 2007년 4월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또 ▶2007년 1월 24일 포천신도시 예정지구 군내면과 가산면(마전리) 일원 738만평(24.4km<sup>2</sup>)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2007년 2월 28일 포천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제안에 따른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간담회 ▶2007년 5월 15일 포천신도시 예정지 조사 및 확정 ▶2008년 5월 신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 ▶2009년 5월 신도시(택지)개발 계획 승인(건설교통부) ▶2010년 5월 신도시(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2010년 12월 편입용지 보상 ▶2011년 3월 신도시 개발사업 착공 ▶2015년 12월 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내면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천신도시 예정용지와 주변 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규제되는 군내면과 가산면(마전리) 일원 738만평(24.4km<sup>2</sup>)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등으로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2007년 1월 24일부터 2010년 1월 23일까지이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은 제외)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 행위 ▶농림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득하였거나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어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허가 또는 반려 처분된 인허가 사항은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또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시 건축허가 및 신고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하였거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인허가가 접수되어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고시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어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행위제한 구역에서 제외된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군내면 주민은 "인근 양주읍정지구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지역만 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포천신도시 예정지역 150만평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묶는 원인이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양주읍정지구는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지역을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포천신도시는 포천시가 계획해 추진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행위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포천신도시 예정지구 지정되는 2008년 상반기에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2010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정된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되는 토지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



최인환 대표

- 풍부한 노하우
- 저렴한 가격
- 위생적인 세탁



이제부터~ 세탁 걱정 끝!

최첨단 기계도입 · 양질의 세탁문화를 열어가는 완주섬유